

## 연탄으로 남북의 경계를 넘다

### Crossing the Border of South-North Korea with Coal Briquettes

박일수 \_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Park, Il-Soo \_Coal Briquettes for Neighbors in Korea

#### I. 인도적 대북지원, 개점휴업 7년째

개점휴업 7년째다. 대북지원사업 담당으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이하 <사랑의연탄>)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차례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시민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결과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들어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9년의 정책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직감한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사전접촉을 신청하고 있다. 통일부는 5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한 것으로 시작으로, 6월 2일에도 추가로 8개 단체의 접촉을 승인했다. <사랑의연탄>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대북지원의 오래된 기억을 꺼내어 복기해보고, 앞으로의 대북지원을 전망해고자 한다.

#### II. 북한주민접촉 신고로 시작되는 대북지원

북한주민접촉 승인 그 자체로 의미가 큰 것은 아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북측상대방과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승인한다는 것이 사업 자체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접촉 이후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과의 협의, 통일부의 방북승인, 반출승인 등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접촉승인이 기사화 되는 것은 정부의 변화된 대북

정책을 예고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사전접촉 승인 이후에 북측담당자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된다. 대북지원 사업을 담당하던 초기에는 팩스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른 단체들의 경우는 심양에 나와 있는 북측 민화협 대표부와 연락을 취하게 된다. <사랑의연탄>의 경우는 당시 현대아산의 개성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다. 얼마 지나서는 이메일로도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편리해진 것이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접촉방법에도 변화가 생겨서 직접접촉, 전화 또는 팩스접촉, 제3자를 통한 접촉에 더불어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 접촉이 추가되었다. 대북지원이나 남북 간 접촉이 인터넷으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 간 직접 접촉은 아니고 중국 심양에 있는 민화협 대표부와의 접촉이다. 북측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답이 올까 싶다가도 간결한 내용의 답메일이 오면 기분이 묘했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의 경계를 우회해서 연결될 수 있다니 말이다.

### Ⅲ.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 연결의 통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촉을 시작한다. 연탄지원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자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메일로 보낸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 수량, 방북할 인원을 알려주면 북쪽에서 초청장을 보내주기도 한다. 초청장의 내용은 방북하는 관계자들(이름을 명시함)이 방북하는 시기와 지역 그리고 체류 기간 등에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북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청장이 와야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초청장, 방북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방북승인을 요청하고, 기다린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준비와 승인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과 북의 행정업무를 연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국 간 회담,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와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 IV. 개성 봉동역에서 남북한주민들의 연탄공동하역

<사랑의연탄>은 한번에 5만장의 연탄을 25톤 트럭 8대에 나눠싣고 개성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전달했다. 개성지역 방문은 보통 하루 일정이다. 방북하는 날 이른 아침에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서 집결한다. 자유로를 1시간여 달려 경의선 도로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다.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 출경 절차를 밟는다. 남북 간은 국가 간 이동이 아니라서 입국, 출국이 아니라 입경, 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출경 절차를 마치면 연탄을 실은 25톤 트럭 8대와 함께 사무실 차량이 줄을 지어 이동한다. 북으로 향하는 통문이 열리고 우리 군 국방색 레토나 차량이 맨 앞에서 인솔한다. 어느 정도 가다가 맨 앞서 달리던 우리 군 차량이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비켜선다. 이제부터는 DMZ 구간이다. 여기부터는 남북한 군이 서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차량만 이동하게 된다.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km 씩 설정되어 있다. DMZ 4km를 달리면 북한의 군의 흰색 레토나가 대기하다가 우리를 맨 앞에서 인솔한다. 북에서 출입 수속을 받고, 북측 담당자를 기다린다. 보통은 우리가 오는 시간을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북측 담당자는 개성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내려온다. 그러다보니 한 번은 우리가 도착했는데, 북측 담당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당황한 적도 있다. 한참 후에 와서 연락을 늦게 통보 받아서 좀 늦었노라고 했다. 서로 직접 연락할 전화나 이런 게 없다보니 겪게 되는 에피소드이다. 방북했을 때 안내할 북측 담당자가 없으면 연탄을 가지고 북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낭패를 겪게 된다. 다행히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긴장되는 만남을 반복하다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난다.

내가 방북할 당시 우리 측 상대방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였다. 담당자들과 수인사를 하고 연탄을 하역 장소로 이동하는데 개성공단을 가로질러서 펜스 밖에 있는 봉동역이다. 개성공단 지역을 벗어나면 개성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다보면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주머니들도 보인다. 그리고 집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

지 않고,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겨울에 찬바람불면 참 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측 민가들 담벼락에 틀로 찍어서 말려놓은 번개탄 크기의 구멍탄(연탄)도 눈에 들어온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도착한 곳은 봉동역이다. 경의선의 문산에서 개성까지 이어지는 철도 복원공사로 만들어진 기차역 중 하나이다. 봉동역에 들어서면 80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철로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연탄>에서 말겨놓은 앞치마, 토시를 입고서 말이다. 연탄을 나르다보면 연탄이 옷에 묻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탄봉사를 할 때 사용하던 앞치마, 토시를 방북할 때 가져간다. 한번은 매번 가지고 오기 힘들다는 핑계로 북에 맡겨두었던 것이다. 그것을 입고, 철로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연탄 트럭이 도착하면 각자가 하역을 담당할 차량 옆으로 온다. 기차역 철로가 평지보다 1m 가량 높게 만들어져 있어서 철로 옆에 25톤 트럭을 대면 연탄을 하역하기 수월하다. 남쪽에서 올라간 <사랑의연탄> 실무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각 차를 담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함께 연탄을 하역한다. 2시간 남짓 땀 흘리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연탄을 하역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땀 흘리는 그 순간은 분단의 긴 세월을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때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라서 얼마 뒤에 결혼한다고 했더니 옆에서 연탄 받으시던 북한 아저씨가 ‘거, 허리 조심해야 되겠구만’하신다. 그 한 마디가 참 살갑게 느껴졌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일상적 대화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이 곧 평화이고, 통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연탄 5만 장을 봉동역에 하역해 놓으면 장관이다.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싣고, 큰 천막으로 덮어두었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우리 몸에서는 비처럼 땀이 흐른다. 함께 흘린 땀은 알 수 없는 연대감을 형성한다. 그 땀으로 서로를 향해 만들어진 적대감을 녹이고, 평화의 연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면 좋으련만. 봉동역 저 멀리 건너편에 각 마을로, 각 가정으로 연탄이 배분되면 가져가려고 나온 주민들이 보인다. 큰 트럭에서부터 화물을 싣는 칸이 달린 오토바이, 리어카 등 온갖 이동도구들을 준비해서 나왔다. 연탄을 싣고 온 트럭과 우리가 봉동역에서 빠져나가면 각 가정으로 배분해서 가져간다. 하역을 마치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봉동관에서 주로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으면서 다음 번 일정을 협의하고 인도인수증과 분배내역서에 서로 서명을 한다. 인도인수증과 배분내역서는 돌아와서 통일부에 방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북측담당자들과 다음 번 일정을 논의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하루 동안 시간여행을 하고 돌아온 느낌이 든다. 실제로 북한의 연료 사용을 보면 석탄과 나무 사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연료소비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연료소비구조와 유사하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일상의 상당 시간을 취사와 난방을 위한 연료를 구하는데 써야 한다. 탈북민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왕복 서너 시간을 걸리는 곳까지 나무를 하러 다녀온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는 이미 다 잘라 써서 땔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북한 세관을 떠날 때 관리의 말이 잊히질 않는다. “다음번에 언제 옵니까?” 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집 연탄 받을 차례란 말입니다.” 겨울에 연료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연탄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사실 <사랑의연탄>이 전달해준 연탄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수량이 못 된다. 더 많이 가져다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 동안 가지 못해서 더 마음이 시리다.

## V. 적정연료로서의 연탄지원

작년은 인도적 대북지원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대북지원 단체들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에서 20주년 백서를 냈다. 지난 20년의 대북지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았다. 북민협의 핵심적인 전략은 단순 지원을 넘어서 개발협력으로 가지는 것이다. 북한개발협력을 고민하면서 <사랑의연탄>도 북한 주민들의 취사, 난방 연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연탄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의 아궁이를 개량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나무심기와 병행해서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취사난방 연료를 연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연탄이 최종적인 생활연료가 되기는 어렵지만, 과도기적으로 ‘적정연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개발은 최신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개선에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과거 1960~70년대 산림녹화와 함께 연탄보일러가 확산되면서 산림벌채가 줄어들고, 산림을 가꾸게 되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나무심기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하지만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심은 나무를 베어서 연료로 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의 경험에 비추어 적정연료인 연탄지원과 아궁이 개량사업, 그리고 나무심기를 통한 북한의 산림녹화는 일정 기간 적절한 북한개발협력 패키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남북의 경계(境界)를 넘어 일상적인 만남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실무자로서 6차례 북한을 다녀왔다. 남북관계가 왕성하던 시기에 대북지원을 하던 담당자는 1~200 차례 방북한 것도 예상였다고 한다. 그 당시 대북지원 단체들 간에도 너무 바빠서 남한에서는 못 보지만 평양에서는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전설로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전해져온다. 내가 방북했던 시기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이었다.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대북지원단체 실무자로서 몇 차례의 방북 경험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현장 경험이 주는 강한 인상이 있는 것 같다. 처음 방북승인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뭐랄까. 첫 데이트 갈 때의 설렘 같은 것도 있었다. 사무실 차를 몰고 DMZ를 지날 때 평화로운 적막감을 느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DMZ만큼은 고요했고, 평화로웠다. 그곳을 지나 북한세관에 도착해서 북한군인이나 북한관리들을 만날 때는 뭘지 모를 긴장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몇 마디 주고 받다보니 그 긴장감도 사그라들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경의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해서 DMZ를 지나 북한세관까지 들어가는데 불과 30여분 남짓이라는 것이다. 그 짧은 거리를 두고, 70년 넘게 대치해왔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팠다. 이 거리를 못 건너서 그리 하세월을 하고 있던 말인가.

5.24조치로 인해서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조짐이 보인다. 다시 자유로와 경의선도로를 달려 남북의 경계(境界)를 넘나들 날이 올 것 같다. 평화로운 관계는 서로 자주 만나야 더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72년 분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일상적인 만남을 지속해나가는 것뿐이다.